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9, pp. 351-358, 2020

ISSN 2233-4890 / eISSN 2713-6353
https://doi.org/10.15207/JKCS.2020.11.9.351

노인요양병원 근무자의 감사성향이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감사일기 경험의 조절효과

박순명[1], 김자옥[2], 김자숙[3*]
[1]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 차장, [2]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3]전남대학교 간호대학 시간강사

The gratitude disposition of geriatric hospital employees Impact on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gratitude diary experience

Soon-myeong Park[1], Ja-Ok Kim[2], Ja-Sook Kim[3*]
[1]Senior manager,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2]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3]Part-time Lecturer,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노인요양병원 근무자의 감사성향이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감사일기 경험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설문지는 감사일기와 관련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4개의 노인요양병원 근무자를 대상으로 총 485부를 선정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6.0을 이용하여 단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요양병원 근무자들의 감사성향은 감사일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감사성향은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p<.01$). 그러나 감사성향이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감사일기 경험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노인요양병원 근무자의 감사성향이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감사일기 경험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여 근무자의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요양병원 인력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 노인요양병원 근무자, 감사성향, 직무만족, 삶의 만족, 감사일기 경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ratitude disposition of geriatric hospital employees on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gratitude diary experience. A total of 485 copies of the research questionnaire were selected for workers in four geriatric hospitals who are promoting campaigns related to the gratitude diary. For data processing, a simple or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6.0.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gratitude disposi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However, the effect of gratitude disposition on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audit diary experienc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programs for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geriatric hospital employees and provide basic data on manpower management of geriatric hospital.

Key Words : Geriatric hospital employee, Gratitude disposition, Job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Gratitude diary experience

Corresponding Author: Ja-Sook Kim(jskim-98@hanmail.net)
Received August 11, 2020 Revised September 3, 2020
Accepted September 20, 2020 Published September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은 고령사회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하여 2004년 115개소에서 2020년 1,584개소로 13.9배가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위 5개 지역은 경기 352개소, 부산 188개소, 경남 145개소, 서울 125개소, 경북 117개소이며, 하위 지역은 세종 6개소, 제주 10개소, 강원 32개소, 충북 49개소로 지역적 편차를 보였다[1,2].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수는 2013년 33만 6,000명에서 2016년 42만 9,000명으로 63.1% 증가하였다[3]. 요양병원 노인들은 신체 기능과 정서적인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요양병원 근무자는 필요한 자격, 역량, 윤리성을 갖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무와 삶 자체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낄 때 더 나은 노인돌봄 서비스가 가능하다. 최근 평생교육 및 기업교육 맥락에서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인간의 약점보다 긍정적 역량과 특성에 집중하는 긍정심리학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긍정심리학에서 긍정적 성향 중 하나가 감사로 자신의 안녕과 복지에 기여하는 혜택이나 도움을 준 인격, 비인격 대상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다[4]. 최근에는 이를 감사성향(grateful disposition)으로 구체화하여 측정할 수 있다. Weiner(1986)는 성향적으로 더욱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들은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성향 때문에 더욱 감사를 느끼게 된다[5]. McCullough, Emmons, & Tsang(2002)는 누군가에게 같은 사건이 벌어져도 어떤 사람들은 더 높은 강도, 빈도, 범위, 밀도로 감사를 느끼며, 이런 성향을 감사성향이라고 한다[6]. 감사 또는 감사성향은 개인적으로 삶의 만족, 주관적 웰빙, 자부심, 대인관계, 공동체 의식, 친사회적 행동, 안녕감 등과 관련이 있다[7]. 조직에서는 집단의 응집력, 직무만족, 조직몰입, 공동체의식 등을 높인다[8.9].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직무상 겪는 다양한 일들에서도 만족함을 더욱 발견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10]. 감사성향의 연구대상자로는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등이 많았고 직장인 등 조직 맥락 차원에서는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평생교육 관점에서는 성인기의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성인대상과 조직 맥락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현대인은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수명이 연장되었고 직장 · 학업때문에 1인 가족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결혼 후 자식을 낳지 않고 본인들의 삶을 즐기는 부부의 증가 등 많은 사회적 인간관계를 맺기보다는 혼자서 또는 소수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현상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특성으로 인하여 스스로가 본인의 삶에 감사할 줄 아는 성향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Porter & Steers(1973)는 직무만족을 내재적 만족과 외재적 만족으로 나누었다. 내재적 만족이란 직무의 난이도, 도전성, 중요성, 다양성, 동료 관계 등 직무의 내재적 가치에서 갖게 되는 만족감이며, 외재적 만족이란 보상, 환경, 승진 등 직무수행 결과에 따라 직무 이외의 보상 요인에서 갖게 되는 만족이다[11]. Stewart et al.(2003)은 구성원의 직무만족이 높으면, 개인과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반대로 직무만족도가 낮아지면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상태가 높아지며 이는 업무 불만족, 정서적 갈등, 의욕 상실과 연결된다고 하였다[12].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 근무자들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독립변수로서 감사성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Neugarten et al.(1961)는 최초로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 지표(life satisfaction index)를 개발하였으며, 그는 삶의 만족도를 개인 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과 평가로, 생활에 의미와 긍정적 자아상을 두고 낙천적으로 행복 감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13]. 여러 연구에서 행복감은 경제적 지표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결과들이 나타났고, 인종, 나이, 종교 등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수입, 재산, 주거, 교육 등 객관적인 지표들은 삶의 만족도에 제한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손솔, 서경현(2014)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감사성향이 심리적 웰빙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15], 손선희, 박정양, 서정현(2015)의 연구에서는 여성 직장인의 감사성향은 주관적인 웰빙과 상관관계를 나타냈다[16]. 엄태성, 강원석(2015)은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사 나눔이 개인의 행복감과 집단응집력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다[9]. 감사성향이 삶의 만족, 행복감, 자부심, 희망 등과 같은 긍정심리 변인들과 관계가 있다[17]. 이에 감사성향은 조직과 개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직장에서의 직무만족과 개인적인 삶의 만족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감사일기는 말 그대로 감사를 주제로 한 일기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감사의 내용을 간단하게 글로 적는 것을 의미한다. Emmons & McCullough(2003)은 후천적으로 감사를 더욱 풍부하게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매일 감사한 일을 적어볼 것을 권하고 있다[10]. 일반적으로

일기는 매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자아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감사일기는 감사의 정서를 한번 더 깊게 반추해 봄으로서 그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즉 대상자가 다른 선행 연구를 근거로 하여 노인요양병원 근로자의 감사성향이 높은 경우 직무만족, 삶의 만족이 높아질 것이고 감사일기는 원래 가지고 있던 감사성향의 효과를 더욱 증폭시킴으로서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병원 근무자의 감사성향이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감사일기 경험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여 근무자의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요양병원 인력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노인요양병원 근무자의 감사성향이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감사일기 경험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사성향, 직무만족, 삶의 만족, 감사일기 경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2) 연구대상자의 감사성향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3) 연구대상자의 감사성향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5) 연구대상자의 감사성향이 직무만족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감사일기 경험의 조절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설계

연구는 노인요양병원 근무자의 감사성향이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감사일기 경험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병원 내에서 감사일기와 관련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의 4개 노인요양병원 근무자 48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크기를 구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8, 효과크기 .15, 회귀분석에 이용한 독립변수 6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표본 수가 146명이었다. 2019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총 721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51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불성실한 응답과 오류를 제외한 분석대상은 485명(94.7%)이다.

2.3 연구도구

2.3.1 감사 성향

감사성향의 측정은 McCullough et al. (2002)[6]가 개발하고 권선중 외(2006)[18]가 번역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감사 성향척도(Korean version of rhe Gratitude Questionnaire-6 : K-GQ-6)를 사용하였다. 총 6문항,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되며, 측정치가 높을수록 감사성향은 높다고 해석된다. 이 중 역채점문항은 2문항이다. 권선중 외(2006)에서 신뢰도(Cronbach's a)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42로 나타났다.

2.3.2 직무만족

직무만족 측정은 이영면(2008)등[19]과 최주영(2016)[20]등이 사용한 직무만족 측정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1문항으로 전반적 만족 1문항과, 보상 및 공정성 4문항, 관계 3문항, 직무 자체 만족에 대해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은 높다고 해석된다. 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신뢰도 분석을 할 수 없는 전반적 만족을 제외한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보상 및 공정성 요인의 신뢰도는 .76, 관계요인의 신뢰도는 .847, 직무요인의 신뢰도는 .859으로 모두 .700 이상의 값을 띄어, 만족할만한 신뢰도 값이 도출되었다.

2.3.3 삶의만족

삶의 만족 측정은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K-SWLS)를 활용하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는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1985)[14]이 개발한 척도로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명한과 차경호(1998)[21]가 번역하여 타당성을 검증한 삶의 만족도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 K-SWLS)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삶의 만족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다고 해석된다. Diener(1985)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73이었다.

2.3.4 감사일기 경험

최근 1년간 감사일기를 써 본 경험이 있는지를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자는 병원 자체 캠페인을 통해 감사생활의 중요성과 감사일기 기재 효과에 대해 안내받은 받은 후 감사일기 기재 여부는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설문지 조사전 연구의 목적, 자유롭게 연구를 중지하거나, 비밀보장과 익명성 등을 확인시킨 후 설문지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원하지 않은 경우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으며 Korea Research Association (KORA) 설문조사 가이드라인을 준수 하여 진행하였다. 대상자 1명당 설문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다.

2.5 자료분석

회수된 512부 중, 불성실한 응답과 오류가 있는 설문지 19부를 제외하고 48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26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첫째, 빈도분석을 통하여 변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았고, 기술통계를 통해 주요 연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 성향과 직무만족, 삶의 만족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감사성향이 직무만족,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감사성향이 직무만족,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감사일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평균 연령은 40.2세(±12.5)였으며, 이 중 20대가 138명(28.0%)로 가장 많으며, 50대 127명(25.8%), 40대 104명(21.1%), 30대 67명(13.6%), 60대 30명(6.1%) 순이었다. 근무연수는 평균 6.4년(±6.7)이었으며 2년 미만이 94명(19.1%), 2~4년이 137명(27.8%), 5~9년 118명(23.9%). 10~14년 58명(11.8%), 15년 이상이 63명(12.8%)이었다. 성별은 남성 58명(11.8%), 여성 435명(88.2명)이었다. 감사일기 기재 경험 있다 189명(38.3%), 없다 296명(61.7%)였다(Table 1 참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485)*

Characteristics	Category	n	%	M ± SD
Age (yr)	20 ~ 29	138	28.0	40.2±12.5 (yr)
	30 ~ 39	67	13.6	
	40 ~ 49	104	21.1	
	50 ~ 59	127	25.8	
	60 ~ 69	30	6.7	
Gender	M	58	11.8	
	F	435	88.2	
Working years (yr)	〈 2	94	19.1	6.4±6.7 (yr)
	2 ~ 4	137	27.8	
	5 ~ 9	118	23.9	
	10 ~ 14	58	11.8	
	≥ 15	63	12.8	
Gratitude diary experience	Yes	189	38.3	
	No	296	61.7	

3.2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

주요 변인인 감사성향, 직무만족, 삶의 만족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추가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연령, 근무연수, 성별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감사성향은 직무만족(r=.497, $p<.01$), 삶의 만족(r=.405,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감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N=485)*

Variables	GD	JS	LS	Age	WY	Gender (dummy)
GD	1					
JS	.497**	1				
LS	.405**	.480**	1			
Age	.304**	.184**	.124**	1		
WY	.222**	.111*	.060	.325**	1	
Gender (dummy)	.030	.081	.049	-.129**	-.018	1
Mean	3.82	3.47	3.23	40.2	6.4	-
±SD	±0.58	±0.60	±0.65	±12.5	±6.7	-

**p<.01, *p<.05
Gratitude disposition=GD Job satisfaction=JS
Life satisfaction=LS Working year=WY

사성향과 연령(r=.184, *p*<.01), 근무연수(r=.111, *p*<.01)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더미 처리한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은 감사성향(r=.304, *p*<.01), 직무만족(r=.184, *p*<.01), 삶의 만족(r=.124,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2 참고).

3.3 감사성향이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양병원 근무자의 감사성향이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감사성향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t값은 9.460(*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1에서 158.757의 수치이며, 회귀식에 대한 R^2=.247로 24.7%의 설명력을 보였다. 둘째, 요양병원 근무자의 감사성향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값은 8.461(*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1에서 94.823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162로 16.2%의 설명력을 보였다(Table 3 참고).

Table 3. The effect of Gratitude disposition on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N=485)*

IV	DV	SD	β	t	p	Statistics
GD	Constant	.159	-	9.460	<.001	R=.497 R^2=.247 Adj R^2=.246 F=158.757 *p*<.001
	JS	.041	.497	12.600	<.000	
	Constant	.179	-	8.461	<.000	R=.405 R^2=.164 Adj R^2=.162 F=94.823 *p*<.001
	LS	.046	.405	9.738	<.000	

Independent Variable=ID Dependent Variable=DV
Gratitude disposition=GD Job satisfaction=JS Life satisfaction=LS

3.4 감사성향이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감사일기 경험의 조절효과

요양병원 근무자의 감사성향이 직무만족,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감사일기 경험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감사일기 경험을 더미변수로 변환한 후 조절변인으로 투입하였으나 감사성향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감사성향과 감사일기 경험(더미변수)의 상호작용 항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단계에서 감사 성향×감사일기 경험을 투입한 경우, t값은 -.533(p=.59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감사성향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감사일기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절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Table 4 참고).

Table 4. The effect of Gratitude disposition on job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Gratitude diary experience *(N=485)*

stage	Variable	Job satisfaction					
		β	t	p	R^2	Adj R^2	F
1	Constant		9.377	<.001	.247	.246	157.894
	GD	.497	12.566	<.001			
2	Constant		9.351	<.001	.247	.244	78.804
	GD	.498	12.479	<.001			
	GDE(Dummy)	-.007	-.177	.860			
3	Constant		8.098	<.001	.248	.243	52.552
	GD	.509	11.337	<.001			
	GDE(Dummy)	.136	.501	.617			
	GD × GDE(Dummy)	-.146	-.533	.594			

Independent Variable=ID Dependent Variable=DV
Gratitude disposition=GD Job satisfaction=JS
Life satisfaction=LS
Gratitude Diary Experience(Dummy)=GDE(Dummy)

둘째, 감사일기 경험(더미변수)을 조절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감사성향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감사성향과 감사일기 경험(더미변수)의 상호작용 항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단계에서 감사 성향×감사일기 경험을 투입한 경우, t값은 -1.195(p=.23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감사성향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감사일기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절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Table 5 참고).

Table 5. The effect of Gratitude disposition on Life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Gratitude diary experience *(N=485)*

stage	Variable	Life satisfaction					
		β	t	p	R^2	Adj R^2	F
1	Constant		8.338	<.001	.167	.165	96.488
	GD	.409	9.823	<.001			
2	Constant		8.370	<.001	.169	.165	48.656
	GD	.404	9.633	<.001			
	GDE(Dummy)	.039	.924	.356			
3	Constant		8.012	<.001	.171	.166	32.942
	GD	.625	3.296	.001			
	GDE(Dummy)	-.298	-1.046	.296			
	GD × GDE(Dummy)	-.382	-1.195	.233			

Independent Variable=ID Dependent Variable=DV
Gratitude disposition=GD Job satisfaction=JS
Life satisfaction=LS Gratitude Diary Experience(Dummy)=GDE(Dummy)

4. 논의

본 연구는 노인 요양병원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감사성향이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감사일기 경험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여 노인요양병원 근무자의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요양병원 인력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감사일기 경험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할 수 있다.

첫째, 노인 요양병원 근무자의 감사성향과 직무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손강숙(2017)의 연구[22],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한 엄태성 외(2013)[8]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감사는 긍정심리학에서 조직에서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안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감사성향이 높은 요양병원 근무자가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또한 높다는 점과, 감사성향은 후천적 노력을 통해 개발가능하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요양병원 근무자들의 감사성향을 높여주는 활동이 직장과 삶에서 만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감사성향을 높이는 쉽고 단순한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감사일기를 쓰는 활동이 제안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Emmons & McCullough, 2003)[10].

둘째, 노인 요양병원 근무자의 감사성향과 삶의 만족 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손선희, 박정연, 서경현(2015)[1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김윤경(2014)[23]의 연구결과 감사성향과 주관적 행복감(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는 스트레스 대처와 강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고 권영숙(2015)[24]의 연구결과 감사성향은 간호대학생에 있어 스트레스와 행복감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 어떤 힘든 사건이 발생해도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시키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노인 요양병원 근무자의 감사성향과 직무만족,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감사일기 경험은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감사일기 경험은 오직 감사성향과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직무만족이나 삶의 만족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감사일기가 감사의 경험을 더욱 강하고 풍부하게 경험하고, 자주 회상하게 함으로서 효과를 높인다는 선행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설계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특정 시점부터 무작위로 실험집단에는 감사일기를 쓰게 하고, 통제집단과 쓰지 않게 하거나,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처치를 통해 감사일기의 효과를 분석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일정 시점에 감사일기를 써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분식으로 응답하도록 설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인은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바쁜 사람들로 노인요양병원 근무자들에게 감사일기 경험은 바쁜 일상에서 또 하나의 일로서 그들에게 작용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하고자 한다. 이은희, 김주연, 장지영, 변주나(2019)[25]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사일기를 기재하게 한 연구결과 감사일기 활동이 대학생들의 행복감과 감사성향을 증진 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대상자에게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이 된 노인 요양병원은 근무자들에게 모두 일상생활 속 감사표현과 감사일기 쓰기를 하자는 감사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해당 문항은 이 중 감사일기 쓰기에 동참했는지를 물어본 문항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이 감사일기를 쓰려는 경향이 강했을 것이므로 감사성향과 감사일기 경험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한두번의 감사일기 경험이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을 높인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이 낮은 사람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일기에 동참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노인요양병원과 병상이 늘어나면서 노인 요양병원의 근무자들 또한 대폭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노인요양병원 근무자들은 육체적, 정서적으로 약해져 있는 노인을 24시간 케어하는 서비스를 하기에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높다. 따라서 직장내에서 근무자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요양병원 근무자들의 감사성향,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각종 동우회 활동(골프, 볼링, 낚시, 등산, 노래 등), 인문학특강, 가족들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힐링캠프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노인요양병원 근무자에게 실험중재로 감사일기를 적용하여 감사성향,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추후 실험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 측면

에서 고령화에 따라 점차 그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노인 요양병원 근로자들의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앞으로도 노인케어 서비스와 관련한 직업군에 대한 연구는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인 요양병원 근로자들의 직장에서의 측면(직무만족)과 개인적인 삶의 측면(삶의 만족)을 동시에 살펴보았고, 이를 위해 실천적 개입이 가능한 감사성향, 감사일기를 변인으로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각 조직은 근로자들의 직무만족,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투입자원이나 조직 시스템상 승진, 금전적 보상 등으로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감사성향을 주요 변인으로 검토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대상 병원 선정에 있어 감사캠페인을 실시한 노인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목적표집을 실시하였기에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둘째, 실험연구가 아니어서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며, 감사일기로 인한 감사성향의 변화는 얼마나 자주, 지속해서 기재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점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요양병원 근무자의 감사성향이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감사일기 경험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노인요양병원 근무자들의 감사성향은 감사일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감사성향이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그러나 감사성향이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감사일기 경험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노인요양병원 근무자의 감사성향이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감사일기 경험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여 근무자의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요양병원 인력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체계적 표집 대상자를 통한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감사일기 등으로 인한 감사성향의 변화 파악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실험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노인요양병원 근무자의 감사성향이 직무만족, 삶의 만족의 정서적 · 심리적 관계의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노인요양병원 근무자를 위한 정서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의 시사점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Retrieved May 06, 2020,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HIRA43&vw_cd=MT_ZTITLE&list_id=354_MT_DTITLE&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 2020.

[2] M. S. Song. (2013).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mpowerment, nursing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5),* 2304-2314.

[3] S. G. Lim & H. B. Lee. (2019).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out-of-pocket maximum on health care utilizations in Nursing Hospital Patients. *The Korea Social Security Association, 35(1),* 129-149.

[4] Emmons, R. A. & Crumpler, C. A. (2000). Gratitude as human strength: Apprasing the evidenc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56-69.

[5] Weiner, B. (1985). An attributional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92,* 548-573.

[6] McCullough, M. E., Emmons, R. A. & Tsang, J. A. (2002). The grateful disposition : Aconceptual and empirical top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1),* 112-127.

[7] K. H. Lim. (201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gratitude disposition scal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1),* 1-17.

[8] T. S. Eom, B. S. Choi & Y. S. Seung. (2013). The effects of gratitud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The mediating role of gratitude disposition. *Korean Academy of Leadership, 4(2),* 3-25.

[9] T. S. Eom & W. S. Kang. (2015). The influence of gratitude campaign on the individual happiness and group cohesivenes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grateful disposition. *Oughtopia, 30(2),* 315-342.

[10] Emmons, R. A. & McCullough, M. E. (2003). Counting blessings versus burdens :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gratitud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ail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2),* 377-389.

[11] Porter, L. W. & Steers, R. M. (1973). Organizational, work and personal factors in employee turnover and absenteeism, *Psychological Bulletin, 80(2),* 152-176.

[12] Stewart, W. E., Ricci, J. A., Chee, E., Hahn, S. R. &

Morganstein, D. (2003). Cost of lost productive work time among US workers with depression.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9(31),* 35-44.

[13]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2),* 134-143.

[14] Diener, E., Emmons, R. A., Larso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15] S. Sol & K. H. Suh. (2014). Relationships between gratitude disposi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9(2),* 619-635.

[16] S. N. Son, J. Y. Park & K. H. Suh. (2015). Relationships between gratitude disposition, subjective well-being, and feeling of happiness among female workers: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job attitude,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3(4),* 215-223. DOI: 10.17547/kjsr.2015.23.4.215

[17] Watkins, P. C., Woodward, K., Stone, T. & Kolts, R. L. (2003). Gratitude and happiness: Development of a measure of gratitude, and relationship with subjective well-being.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1,* 431-452.

[18] S. J. Kwon, K. H. Kim & H. S. Lee. (2006).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Gratitude Questionnair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1),* 177-190.

[19] Y. M. Lee. (2008). Facet-based and facet-only job satisfaction measure in Korea.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15(4),* 147-185.

[20] J. T. Choi. (2016). *The impact of job stress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Mediating effect of gratitude disposition.*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1] M. H. Jo & K. H. Cha. (1998). International comparison on Quality of life. Seoul: Jipmoondang.

[22] K. J. Son.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Gratitude Disposition and Job Satisfaction of New Employees: Moderating Effect of Self-Express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6),* 559-578.

[23] Y. J. Kim. (2014). Type of Coping with Stress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5(3),* 29-39. DOI: 10.15207/JKCS.2014.5.3.029

[24] Y. S. Kwon. (2019). The moderating effect of gratitude dispos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2),* 105-112. DOI: 10.15207/JKCS.2019.10.2.105

[25] E. H. Lee, J. Y. Kim, J. Y. Jang & J. N. Byun. (2017). The Effects of Gratitude Diary Activities on Happinessand Gratitude Disposition among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4),* 907-917.DOI : 10.14257/MJMAHS.2017.04.78

박 순 명(Soon-myeong Park) [정회원]

· 2009년 8월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업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5년 2월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농산업교육과 (교육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 차장
· 관심분야 : 기업교육학, 평생교육학
· E-Mail : trustpsm@gmail.com

김 자 옥(Ja-Ok Kim) [정회원]

· 2005년 2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2년 2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학, 간호중재개발, 취약계층 삶의 질
· E-Mail : jjaoki-93@wu.ac.kr

김 자 숙(Ja-Sook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20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2020년 8월 :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20년 9월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시간강사
· 관심분야 : 기본간호학, 모성간호학, 간호교육중재개발
· E-Mail : jskim-98@hanmail.net